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사회적 대합의와 벤처정신



최 근 '사회적 합의', '사회협약' 등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특정계층이나 특정정당에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난 1월 20일 '2005 희망포럼'이 발족하였고, 오랜 토론 끝에 지난 6월 2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학계와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5 희망 제안'을 발표하였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대규모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사회적 대합의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채워지지 않은 2%의 갈급함
 '2005 희망 제안'에 서명한 종교계, 시민사회, 재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 분야 170명의 명단 중, 특히 재계에서 참여한 리더들의 명단을 보면 부족한 2%가 느껴진다. 빈부격차의 양극화, 고용과 성장의 추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참여되어야 할 주체들의 부재는 갈급함으로 남는다. '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시민' 등의 현대어들이 사치한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의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수행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근간으로 한 진솔하고 바른 의식과 태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진 자의 오만함으로 '사회공헌'의 귀한 뜻이 손상되어서도 안 되고 받는 자의 비굴함이 '사회공헌'의 장식품으로의 전락으로 이어져서도 안 될 일이다.

사회적 대합의 위한 참여 필요한 때
 '사회적 합의'라는 대의를 위로 두고, 그 소재목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잡아 작금의 우리 현실을 보아도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사업의 주체들 간의 영성하고 합의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횡수의 사회공헌을 앞세운 기업들의 사회공헌 행보는 각각의 주체들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성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영역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사회전체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전문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하는 고유 영역이 있고 이는 서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만들어 왔을까.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소중히 키우며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하여 영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2005 우수 벤처기업 캠퍼스 리쿠르팅 투어'를 개최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도 '2005 우수 벤처기업 채용박람회'를 열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벤처기업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서서히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사회 전체 영역과의 소통에도 젊은 벤처정신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 대합의에 부재한 꼭 참여해야 할 주체들에 대한 젊은 수혈이 새 힘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부족한 2%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모으고 지켜보는 사회적 대합의의 과정에 올바른 자세로 참여할 것인가?